



[대한국사-윤승규]

2019년 추가채용 서울시9급 한국사 해설

(A책형)



해설

문 1.

정답 ③

정답해설

③ 고려의 2성 6부 체제는 부마국의 지위에 따라 충렬왕 시기에 관제가 격하되어 1부 4사 체제로 전환되었다.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은 첨의부로, 6부는 각각 전리사, 판도사, 군부사, 전법사로 편제되었다.

오답해설

① 원종은 태자 시절인 1259년 쿠빌라이 칸에게 항복하면서 불개토평의 약속을 받아내었다. 그 결과 고려는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고려를 원의 직할지로 편입시키려는 입성책동이 여러 번 있었으나 관철되지 못하였다.

② 정동행성은 충렬왕 시기 일본의 2차 원정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정동행성의 승상은 고려 국왕이 겸하였다.

④ 7C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대막리지가 되어 국정을 총괄하였다.

문 2.

정답 ③

정답해설

ㄷ. 1차 한·일 협약(1904.8)이후 재정고문에 메가다가 외교고문에 스티븐스가 임명되었다. → ㄱ. 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 1905.11)으로 인해 외교권이 박탈되었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 ㄴ. 고종은 헤이그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하였다.(1907.7) → ㄴ. 3차 한·일 협약(한일신협약, 정미 7조약, 1907.7.24.)은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 강요되었으며, 이후 차관정치가 행해졌다.

문 3.

정답 ③

정답해설

<보기>의 밑줄 친 왕은 6c 초의 법흥왕에 해당한다.

ㄷ. 울산천전리 각석에는 법흥왕을 ‘성법흥태왕’이라고 칭하고 있다.

ㄴ. 울진봉평신라비는 반란 진압 후 화백회의를 통해 반란 사건의 가담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문에는 법흥왕 시기 화백회의에 참여한 6부의 수장들이 기록되어 있다.

오답해설

ㄱ.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였으며, 마립간의 칭호를 중국식 왕호인 ‘왕’으로 고쳤다.

ㄴ. 진흥왕은 ‘개국’, ‘대창’, ‘홍제’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거칠부를 시켜 역사서인 『국사』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ㄹ. 선덕여왕은 ‘인평(仁平)’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분황사와 영묘사를 창건하였다.

문 4.

정답 ①

정답해설

① 6c 말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가 동북쪽으로의 세력 확대를 피하자 영양왕은 중국의 요서지역을 선제공격하여 수나라를 견제하였다. (598)

오답해설

② 고구려는 당의 침략에 대비하여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영류왕~보장왕)을 쌓았다.

③ 수 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에 침입하였으나 을지문덕이 수나라 별동대를 유인하여 살수에서 그들을 격파하였다. (살수대첩, 612)

④ 당의 침입에 대항하여 안시성에서 양만춘과 군·민이 협력하여 당군을 격파하였다. 양만춘에 대하여는 박지원의 『열하일기』, 송준길의 『동춘당 선생 별집』에 기록되어 있다. (안시성싸움, 645)

문 5.

정답 ②

정답해설

밑줄 친 ‘이것’은 『경국대전』이다.

② 조준이 편찬을 주도한 법전은 『경제육전』으로 태조(1397)때 조준이 위화도 회군 이래의 조례를 모아서 편찬한 최초의 공식적인 통일 성문 법전이다.

오답해설

①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다.

③ 『경국대전』은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육전으로 구성된 조선의 기본 법전이다.

④ 세조 시기 역대 왕들이 만든 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종성헌주의에 따라, 육전 상정소가 설치되면서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다.

문 6.

정답 ②

정답해설

② 조·일수호조규에는 부산 이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이 들어 있으며, 이에 따라 왜관이 있었던 부산에 1879년 일본 영사관이 설치되었다. 나머지 두 곳의 항구는 원산과 인천으로 각각 1879년, 1883년 개항되었다.

오답해설

① 일본은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하는 조항에 합의하였다.

③ 조·일수호조규에는 개항장(부산)에서의 일본의 치외법권이 인정되었다.

④ 일본의 조선에 대한 연해안 측량권은 조약 본문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영토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평등 조약의 내용이다.

문 7.

정답 ①

정답해설

ㄱ. 영조는 압슬형, 경자형, 낙형 등 가혹한 악형을 금지하였다.

ㄴ. 영조는 청계천 준설 사업을 추진하여 홍수에 대비한 치수사업을 벌였다.

오답해설

ㄴ. 서이수,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등의 서열 출신 학자를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한 국왕은 정조이다.

ㄷ. 양반과 상민이 똑같이 군포를 부담하는 것은 호포론으로, 호포론은 대원군 집권기에 추진되었다. 영조가 추진한 균역법은 감포론을 기반으로 1인 당 2필의 군포 징수를 1필로 감한 것이다.

문 8.

정답 ④

정답해설

④ 향도는 백제에서도 그 자취를 살필 수 있으며, 신라 김유신의 화랑도 조직 이름인 용화향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향도의 매향 행위는 미륵하생신앙을 바탕으로 백성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구원받으려는 믿음이 반영된 것이었다.

오답해설

① 태조는 훈요십조에서 도선이 산수의 순과 역에 따라 세운 비보사찰 이외에 다른 절들을 함부로 세우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② 『초조대장경』은 현종 시기부터 만들기 시작하여 선종 시기에 완성되었다. 『초조대장경』의 제작 과정에서 거란의 대장경을 참고한 것은 문종 시기 이후이며 현종 시기에는 송의 대장경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대장경은 일시적으로 미완성본이 흥왕사에 보관되었다가 제작이 완료된 후 부인사에서 이관되어 보관되었다.

③ 국정사를 중심으로 해동천태종을 창시하고,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은 대각국사 의천에 해당한다.

문 9.

정답 ①

정답해설

① 궁중 도서를 관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학문기관에 해당하는 기구는 집현전과 집현전의 후신인 홍문관에 해당한다. 예문관은 왕명을 받들어 교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다.

문 10.

정답 ④

정답해설

④ 제 1차 경제개발계획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주관하에 1962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오답해설

- ① 귀속재산처리법을 공포한 것은 1949년이며 본격적인 귀속재산의 처리는 6·25 전쟁 이후에 추진되었다.
- ② 한미경제조정협정은 1952년에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6·25 전쟁 중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원조를 담당한 국가와 원조를 지원받아 배분하는 이승만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 ③ OECD의 가입은 1996년 김영삼 정부 시기에 추진되었다.

문 11.

정답 ①

정답해설

- ①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는 중국과 우리나라 및 다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화이관에 따라 규정되었다. 중국을 중화로 인정하고 사대정책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일본 및 여진 등은 화전 양면의 외교정책을 구사하는 교린의 입장에 따라 관계를 규정하였다.

오답해설

- ② 고려 초의 대외 정책에 해당한다.
- ③ 무력진압이 아닌 화전양면책인 교린 정책이 구사되었다. 이에 따라 교린정책에 의하여 평화기에는 대외 교류 및 무역관계를 강화하였으며, 침략이 일어날 경우 무력으로 강력하게 맞서는 입장이 전개되었다.
- ④ 조선 전기에는 류큐(현재 오키나와), 시암(현재 태국), 자와(인도네시아)등의 국가들과 교류하였다.

문 12.

정답 ④

정답해설

- ④ 사료는 6두품인 설계두가 7세기 초 골품제의 모순을 거론했던 내용에 관한 것이다. 밑줄 친 ㉠은 골품에 해당한다. 설계두는 621년 당으로 건너갔으며, 당의 고구려 원정시 중군하였다가 전사하여 당태종으로부터 사후 대장군의 칭호를 받았다. 골품제는 혈연에 따른 폐쇄적 신분제로 승진의 상한선이 결정되었다.

오답해설

- ① 골품제가 정비된 것은 법흥왕 시기의 일이다.
- ② 골품제는 신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폐지된 적이 없다.
- ③ 진골은 17관등에 따른 전체 관등에 제수될 수 있었으며, 자·비·청·황 4색의 공복을 입을 수 있었다.

문 13.

정답 ④

정답해설

보기의 국가는 부여에 해당한다.

- ④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의하면 부여에서는 왕권이 약하여 나라에 오탁이 익지 않거나 한 해가 발생하면 왕에게 책임을 묻거나 왕을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오답해설

- ①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마한에서는 소와 말을 순장하였으며, 변한에서는 큰 새의 깃털을 장례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 ②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다. ③ 삼한에 대한 설명이다.

문 14.

정답 ③

정답해설

- ③ 김보당(1173)과 조위충의 난(1174)은 무신정변(1170) 이후 정중부 집권에 항거하여 일어났다. 김보당은 동북면 병마사로 폐위된 의종 복위를 명분으로 거병하였다가 진압되었으며, 조위충은 서경 유수로 무신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수년간 세력을 떨치다 진압되었다. 최충헌 집권기에 일어난 사건은 이비의 난, 탐라의 난, 만적의 난 등이다.

문 15.

정답 ①

정답해설

<보기>의 사실 중 세 번째에 일어난 사건은 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이다.

- ㄷ. 이승만은 1946년 6월에 정읍발언을 통해 단독정부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 ㄴ. 좌우합작 7원칙은 1946년 10월에 합의되었다.
- ㄱ. 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1947년 5월부터 열리기 시작하여 8월 말쯤 결렬되었다.
- ㄹ.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 단독선거를 결의하였다.

문 16.

정답 ①

정답해설

- ① 자료의 내용은 이시영, 이회영 형제 가문의 독립운동에 관련한 것이다. 이들은 신민회 계열의 인사로 서간도 삼원보에 신흥강습소를 만들어 민족 교육과 독립군 양성에 매진하였다. 신흥강습소는 1919년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였다.

오답해설

- ② 대한광복군정부(1914)와 대한국민의회(1919)는 모두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독립운동단체로 이회영 형제의 독립운동과는 관련이 없다.
- ③ 서전서숙은 1906년 북간도에서 이상설이 만들었으며 간민회 역시 1913년 부간도에서 조직되었다. 이 지역의 독립운동과 이회영 형제의 독립운동은 연관이 없다.
- ④ 고종 복위를 목표로 의병봉기를 계획한 조직은 임병찬이 설립하려 했던 독립의군부(1912)에 해당한다. 신민회 계열은 임금 복위를 기반으로 한 복벽주의가 아닌 공화정체의 독립국가 건설을 추진하였다.

문 17.

정답 ④

정답해설

- ④ 고종 재위기인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비변사는 축소되었다가 곧 폐지되었다. 1865년 대원군이 집정하면서 의정부와 비변사의 한계를 규정, 국정 의결권을 의정부에 이관하면서 비변사는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후 3군부 제도를 부활시켜 군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폐지되었다.

문 18.

정답 ④

정답해설

- ㄴ. 제시문의 내용은 노비안검법으로 4대 광종시기에 해당한다.
- ㄹ. 전지와 시지를 모두 지급한 것은 시정 전시과로 5대 경종시기에 추진되었다.
- ㄱ. 소손녕이 대군을 동원한 것은 거란의 1차 침입으로 6대 성종시기에 해당한다.
- ㄷ. 송나라 사신 서공의 고려 방문은 17대 인종 재위 초에 이루어졌으며, 『고려도경』은 인종대에 저술되었다.

문 19.

정답 ②

정답해설

- 제시문의 내용은 신간회의 강령이다.
- ② 105인 사건(1911)으로 탄압을 받은 단체는 신민회이다. 이 사건은 1911년 조선총독부가 민족 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테라우치 마사타케 총독의 암살미수사건을 조작하여 105인의 독립운동가를 감옥에 가둔 사건으로 애국계몽운동기의 비밀결사였던 신민회가 해체되는 원인이 되었다.

문 20.

정답 ③

정답해설

- ③ 과전법은 경기사전의 원칙을 기반으로 150~10결을 전·현직 관리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하였다.

오답해설

- ① 1391년 제정된 과전법은 경기 사전의 원칙에 의해 경기도에 한정되었다. 과전법 시행 이후 경기도의 땅이 부족해지자 태종 시기 하삼도로 일부가 이급되었으나 세종 이후 지급액이 축소되어 경기도로 다시 환원되었다. 과전은 명종 때까지 경기도에 한정되어 지급되었으며, 녹봉제가 시행되면서 소멸되었다.
- ② 과전법은 소유권을 제외하고 수조권만을 부여한 제도였다.
- ④ 과전법은 세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